

“광주·전남서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은 어려워”

고용부,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전국 평균 54.7, 광주는 52.2점 전남도 54.9점 ... 갈수록 악화 시·도,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워라벨' 최고 지역은 부산·서울

광주와 전남에서 육아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8대 특·광역시 가운데 6위였으며, 전남 역시 전국 평균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양 시·도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11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년(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다. 특히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광주는 약간 상승한 반면, 전남은 그 반대였다.

광주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52.2점으로 8대 대도시 가운데 1위인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대구(54.8점) 등에 이어 6위였다. 전남(54.9점)은 9대 광역 도단위 가운데 경남(58.1점), 경기(56.9점), 충남(56점)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지만 평가 점수가 전국 평균(54.7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제수용품·선물용 과일 '산더미'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농산물시장 공판장 천과동에 제수, 선물용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균형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일'의 경우 총 근로 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유연근무제 이용 등이 포함된다. '생활' 영역은 여가, 일·여가생활 균형 수준, 여성취업·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남성 가사 노동시간 비중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제도 영역 지표로는 공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 교실 이용률, 여성·남성 육아휴직 이용 등이 있고, '지'

체 관심도' 지표에는 지자체의 관련 제도 홍보, 관련 조례·담당 조직 유무 등이 있다. 결국 균형지수는 그 도시의 직장생활 환경과 육아 환경 및 지원 제도, 사회 환경까지 망라한 것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높아 '워라벨'이 최고인 곳은 부산(64.1점)과 서울(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 도시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

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리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또한 공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이 높은 점 등도 시·도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 구글과 손잡고 'AI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구글클라우드코리아 협업 제안 강기정 시장, 아태 총디렉터 초청

광주시와 구글(Google)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을 위한 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등 광주방문단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내 구글 본사를 찾아 글로벌 첨단기술 기업이 바라보는 디지털산업

트렌드 및 전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정무장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과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DH글로벌 이장권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구글 본사에서는 대외협력 및 리서치부와 수석팀장인 세피 모그하담(Sepi Hejazi Moghadam)과 박민재 구글 클라우드 공공부문 영업대표가 참석했으며, 폴 윌슨(Paul Wilson) 아시아태평양일본지역 공공부문 총괄이

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광주방문단을 반겼다.

이날 구글은 광주시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업 모델을 제안하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폴 윌슨 총괄이사는 구글코리아캠퍼스 초청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강 시장도 이날 구글측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보안과 윤리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폴 윌슨 아태일본지역 공공부문

총괄이사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시야는 물론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이 인상깊었다"면서 "서울 구글코리아 캠퍼스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역량에 대해 서로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인공지능(AI) 중 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입장에서 구글은 꼭 만나고 함께 사업해야 할 파트너인데, 구글측이 광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재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코리아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구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다리부터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미, 북한 핵공격 가정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도 도전한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국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 정하고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등을 과제로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은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안을 가장 앞세웠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25사업'에 따라 하반기 발사가 예상되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아울러 군은 작년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 올해 '완전체'를 탑재한 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이 성공하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우주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해 북한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하게 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 2위 빌리왕' 사기 커백션 밝혀졌다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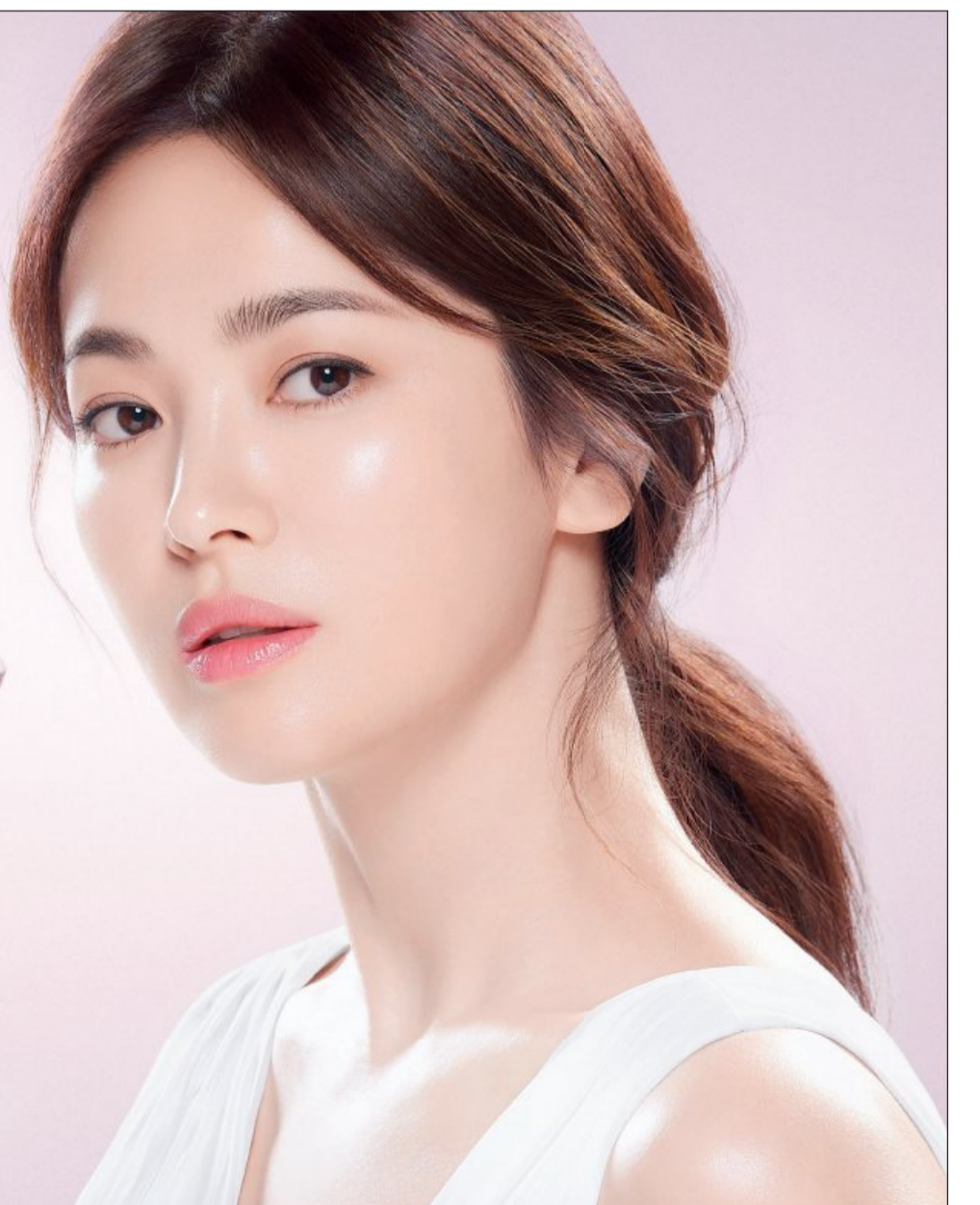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 전역이 전시관 ▶16면

박형서 감독, 우승컵 안기고 헤어질 결심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